



동해해수청, 여름철 대비 항로표지 특별점검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채균)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로표지시설 특별점검을 '25년 6.4.~8.22.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태풍 내습, 해상 기상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 동해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관내 항로표지시설 18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묵호·주문진·속초등대 해양문화공간 전망대를 비롯한 안전난간대, 배수로 등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점검 시 발견된 위해요소에 대하여 즉시 보완 조치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자료는 장기적인 항로표지시설 관리에 활용하여 더욱 안전한 해양환경 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여름철 동해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평안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김동식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김형건 (033-520-6274)